

사랑의 모양으로 사랑사사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삶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성탄주일예배 2025년 12월 21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기도 / 다같이

*찬송 / 우리 구주 나신 날 / 찬송가 121(신) 121(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119번 (성탄주일) / 다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천사들의 노래가 / 찬송가 125(신) 125(구)

기도 / 최상천 장로

성경봉독 / 빌립보서 2장 5-12절 / 다같이

성가대 찬양 / 오거룩한 밤

말씀선포 / 가장 급진적인 사건 / 박화신 목사

찬송 / 참반가운 성도여 / 찬송가 122(신) 122(구)

교회소식 / 다같이

*폐회송 / 기쁘다 구주 오셨네 / 찬송가 115(신) 115(구)

*축복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요약

1. 성탄은 한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가장 급진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으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2.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이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멀리서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삶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것이 성육신의 복음입니다.

3. 그러므로 성탄은 결단 이전에 감격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는 은혜에 밀려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생명샘 장로교회 2025년 표어

디모데전서
4장 15-16절

15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지난주일 설교 우리의 시작을 생각하면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골 3:1-4

성도의 삶은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애써 쌓아 올리는 여정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신분에서 시작됩니다. 이 은혜의 시작은 막연한 종교적 감정이나 일시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살리셨다는 분명하고 객관적인 확신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선포합니다. 신앙은 가능성을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응답입니다.

이러한 다시 살리심의 확신 위에서 성도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현실의 책임을 내려놓거나 세상과 단절하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일하고 관계하며 선택해야 하지만, 그 모든 삶의 기준과 방향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영적 사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 판단과 우선순위,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반복해서 생각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가치는 사람들의 평가나 현재의 형편으로 규정되지 않으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드러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출발점, 곧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확신을 기억하는 성도는 오늘의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작을 생각하면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생명샘 소식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라는 표어로 남은 귀한 시간들을 끝까지 정진하셔서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주일을 지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따라가기 위한 귀한 기쁨의 주일이 되길 소원합니다.
5. 12월 28일 주일 예배 직후에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6. 12월 31일 수요일에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7시에 모여 친교한 후에 8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롭고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 이번 주 기도제목
2025년 한 해를 정리하며 주님께 감사하기
송구영신 예배을 위해
신정호(미얀마), 강승우(파라과이) 선교사님 위해

12월 예배 위원

안내	박래석	최명희
----	-----	-----

기도	한광기(7)	최명희(14)	장미혜(21)	최상천(28)
----	--------	---------	---------	---------

교회 모임 안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제직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성경공부	성경 읽기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사랑의
모양으로
사랑사사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 아니라 순종의 깊이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들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끝까지 순종하신 그 길이 바로 성탄의 본질입니다. 그분은 편안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이 순종은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규정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번 성탄,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낮아짐의 길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분의 순종 앞에서 우리의 교만은 내려지고,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실제적인 은혜입니다.